

노동정책연구
2025. 제25권 제1호 pp.193~201
한국노동연구원

서평

**시간 불평등을 넘어 : 노동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시간불평등(The Politics of
Time : Gaining Control in
the Age of Uncertainty)』**
(가이 스탠딩 저, 안효상 역, 참비, 2024)

손연정*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이란 명목으로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하였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노동개혁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노동자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이 계속되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유연한 고용형태의 증가로 제로시간(zero-hour) 계약, 깃 경제(gig economy),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상태로 인해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거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등 시간 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점에서 시간만큼은 평등한 자원이라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의 통제권은 모두에게 평등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ysyj@kli.re.kr)

게 주어지지 않는다. 가이 스탠딩의 『시간 불평등』은 시간이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불평등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어떻게 계층적, 경제적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적 의제로서의 시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간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저자는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시간의 사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시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다. 그는 시간 체제를 농업적 시간, 산업적 시간, 그리고 제3의 시간으로 구분한다.

먼저 ‘농업적 시간’은 자연과 공동체에 기반한 시간 사용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농업 사회에서 시간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흘렀고 계절과 날씨가 시간 사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다. 농업 사회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노동의 시작과 끝을 의미했으며 노동과 비노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자급자족 경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농업 사회에서도 노동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었는데, 귀족과 지배 계층은 노동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농노나 하층 계급은 육체적 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시간 개념이 급격히 변화했다. 기계화된 공장이 등장하면서 시간은 경제적 자원이 되었고 노동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 이상 개인의 리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할되고 관리되는 방식으로 변했다. 공장제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표준화되고 일정한 규율 아래 배치되었다. 노동력은 시간 단위로 측정되고 급여와 연결되면서 개인의 시간이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의해 상품화되었다. 출퇴근 문화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시간 사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동 계급은 긴 노동시간 속에서 여가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었으며 반면 자본가 계급은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업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간의 개념이 더욱 불명확해졌다. 저자는 이를 ‘제3의 시간’이라 명명하며, 현대 사회의 시간 사용 방식이 산업적 시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3의 시간 체제에서는 원격 근무,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경제 등이 확산되면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성과 기반 보상이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가 점점 상업화되어 노동 이외의 시간에 휴식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시간 체제의 특징이다.

저자는 특히 프레카리아트의 시간을 분석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노동시간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또한,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되고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간 불평등이 단순한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돌봄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알고리즘과 고객의 평가 시스템에 종속되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사회적 파놉티콘(Social Panopticon)’ 속에서 이들의 노동은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으며,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과도한 대기 시간 속에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들은 원할 때만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실제 선택권은 제한적이며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시간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시간 불평등은 단지 노동시간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 구

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저자는 시간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적,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노동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시간 착취와 불평등은 오늘날 계급구조의 맨 위에 있는 부호 계급과 엘리트 계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급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엘리트 계급 아래 위치한 살라리아트는 거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일과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높은 수입을 얻지만 소진, 스트레스,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따른다. 한편, 소득 스펙트럼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노동자 대중 계급인 프레카리아트는 정해진 작업장이나 노동시간이 없고 부불노동인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스탠딩은 특히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주목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의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시간 불평등은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노동시간이 길고 불규칙할수록 정치적 토론이나 사회적 참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다. 시간이 노동에 매몰됨으로써 “성찰, 논쟁, 창조적이고 회생적인 게으름,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로 폄하되거나 간주”되며, 그 결과는 “스콜레의 잠식”, 즉, 민주주의의 약화로 나타난다. 스탠딩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적 시간 통제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잃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원인이 된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립되었던 일과 노동의 구별, 레크레이션과 여가의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시간 사용을 노동(labour), 일(work), 여가(recreation), 놀이(leisure), 관조(aergia)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나누었는데, 노동은 가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행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활동이었으며, 진정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과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여가(스콜레, scholē)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 외의 시간은 단순한 ‘여가’나 ‘소모성 휴식’으로 치부되고 있다. 정치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개인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스탠딩은 시간 불평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노동주의를 지목한다. 노동주의는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는 시간이 노동의 척도에 의해 평가되며,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받는다. 저자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적 시간’ 동안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노동을 상품화하고 일자리 물신화를 통해 노동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노동 외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스탠딩은 이러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시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설명하면서 특히 여성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무급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의 확산은 시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AI와 알고리즘 기반의 업무 배정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며, 일과 일이 아닌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저자는 이를 ‘코로나 시대의 시간 불평등’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노동주의는 ‘일할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된다. 스탠딩은 이러한 노동주의적 사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시간 보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 또는 사회적 윤리로 여겨지고, 개인의 가치를 노동시간과 직결시키는 경향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치학자 엘리자베스 F. 코언은 사회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평등한지 판단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가이 스탠딩 역시 ‘국가에 의해 집합 행동이 장려되고 지지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그저 소비자나 노동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에 매몰된 사람들은 돌봄, 정치 참여, 토론 등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정치적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고 이는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저자는 “시간 불평등은 모든 불평등 가운데 최악”이라고 일갈한다.

시간의 해방을 위한 정책 대안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의 정치를 통해 진정한 여가를 되찾고, 공동체 기반의 공유화(commoning), 즉 ‘공동선을 위해 공유되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핵심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들은 생계를 위해 강제적으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특히 프리카리아트 계층이 시간의 통제권을 회복하고 자율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대안이다. 또한, 스탠딩은 노동중심 사회 구조가 시간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노동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지대 추구 자본주의에 의해 나타난 계급 기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유지에서 가져간 지대를 조세와 분배 체제를 통해 배당으로 재순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공유지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노동 외 시간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적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탠딩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래 가상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2030년대에 등장할 영국의 혁신적인 진보 정부에 의한 사회적 전환을 가정하며, 지대 추구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해 이들이 시행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간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를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이나 소득 보장을 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타인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는가? 무급노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정치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결국 시간의 해방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전환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의 논의는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

과도 맞닿아 있다. 『시간 불평등』은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중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도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인구가 13.1만 명에 이른다.¹⁾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을 130시간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²⁾,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시간의 정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잃고 있음을 방증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여러 시사점이 있지만, 향후 조금 더 살펴보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시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케인스는 1930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2030년이 되면 주 15시간만 노동하고 인생에서 더 나은 일을 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들로 불평등과 과시적 소비 성향, 일중독 또는 노동의 내재적 가치(또는 일의 즐거움)에 주목한다. 스탠딩이 주장하는 공유 경제와 공동체 기반의 경제 모델이 현실적으로 소비주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추후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조금 더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돌봄노동의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부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재분배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이는 젠더 불평등 해소와도 연결되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스탠딩은 공유지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을 제안하지만,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 속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추가적

1) 통계청「2025년 1월 고용동향」 참조.

2)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실현 가능한 사회적 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의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선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았던 슬로건을 꼽으라면 단연 ‘저녁이 있는 삶’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는 그만큼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절실했기 때문이며,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이 선거 때마다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공유지 배당 등 시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다소 급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웰빙, 건강, 신뢰, 사회참여 등에서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캐나다와 스위스에서는 탄소 배출 부담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공유지에 매겨진 요금을 배분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주의에서 벗어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시간의 주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절실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시간 민주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이를 성찰하고 논의할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2025년 1월 고용동향」.

Cohen, E. F.(2019).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 바다출판사(최이현 역).
OECD. <https://data-explorer.oecd.org>.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접속일 : 2025. 3. 4).